

성형 대출의 구조적 책임을 묻다 :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의 공모 속기록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2

16. 12. 7.

15:30~18:30

[이름 소개 및 이름의 사업 소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발제]

[토론]

○ 토론문 내용 외 발언

토론 1) 미용성형 및 미용성형시장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정슬아

: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관광확장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다.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 통역서비스와 언어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대한 내용이다.

: ‘누구나 성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성형으로 경쟁력을 얻어가라’는 방식

: 성형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과정 중 만난 사례가 있다. 성형외과 홍보이벤트에 당첨되어 전신성형수술을 한 사례로 지방흡입수술 후 압박복을 입은 상태에서 계약에 따라 애프터 모델로서의 사진을 찍어야하니 몸무게 조절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러나 몸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고 이 상태로는 사진을 못 찍으니 한번 더 수술을 하자는 압박이 있었다.

: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상담실장이고, 의사는 수술대 위에서 만나게 된다. 본인이 받게 될 수술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다.

: 유흥업소 마담이 ‘외부 실장’으로서 역할하면서 수수료 받아가는. 실제 명함을 파놓은 경우도 있다.

: 대출로 돈을 빌려서라도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힘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토론 2) 성형대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의 허점을 돌파하기 /원민경(법무법인 원)

: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이 정비되었다고 하지만 추심업무는 여전하되 조금 완화하는 정도다. 3회에서 2회로 낮춘 수준으로 매일매일 2회는 가능한 것이다. 접촉자체를 막아야 하지 않나. 채무관계인(친족, 가족, 동거인 등)과 채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성매매처벌법 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를 확대해야한다.

: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빼야하지 않나.

토론 3) 금융과 신용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김주희(여성학 강사)

: 대부업자들은 과잉 수수료, 이자 등을 취하기도 하지만 채권을 상품화시켜 수익을 얻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선불금을 불러나가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 금융화의 시대다.

: 상담실장이 없어지기보다는 전국의 상담실장이 단결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젊고 잘 성형된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퇴출되는 것 아니냐.

○ 토론자 김주희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

유나 : 같이 고민할 만한 질문인 것 같아 간단히 답변을 정리를 해보았다. 여성들에게 신용을 쟁취하는 게 운동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성해방이 어떤 금융,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96년에는 여성전용통장, 점포, 대출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 당시에는 운동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만이 누리는 특권을 똑같이 누린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1금융권에서 여남성이 동등하게 다뤄져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리이건, 고리이건, 왜 돈을 빌려야만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을 들어야 노후가 보장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자랑 똑같이 대출받게 해달라는 요구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이러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자본의 억압적 구조에 여자들도 복무하게 되는 꼴이다.

이름에서 <가난을 팝니다>를 같이 읽었는데 책에 따르면 그라민 은행이 사실상, 여성들에게 돈을 갚게 하고 추심과정에서 여성을 고발 한다거나 집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한다.

일하는 여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임금노동에서의 성차별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또 다른 착취 구조로 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성노동할 자유를 외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니가 노력만 하면 된다,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구조적인 것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름은 자활사업을 받아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활사업 진행하는 단체에서 고민이 깊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정책에서 말하는 자활은 토론자가 쓴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자활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은행가는 것,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것을 익히는 것은 지금까지 박탈당했던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 일수 있다. <여성과 인권> 2016년 상반기 권을 열심히 봤는데, 전북의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글을 썼다. 그 글은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자활이 조건부지원이 아니라 사회권의 확대로 가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정부가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받아 안으려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전반적인 정부의 실업취업정책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

질문1 : (질문지로 원민경 변호사에게 질문)

미국의 약탈적 대출 행위에 대한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성매매 관련 채무에도 실제로 작용을 하는지, 실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원민경 : 제가 딱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셨네요. 제가 숙제를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적 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도 이름의 보고서를 보고 접했습니다. 우리 법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따 왔을 것이어서 해외 법을 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1 : (손들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30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재산상황을 살피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다고 하지만 업주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삼백만원 이하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게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갚으려고 할 때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새로 빌리게 되어서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성산업과 금융업의 공모관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어디를 틈새로 잡고 실천을 해야 하는지, 얘기가 너무 거대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유나 활동가 인터뷰 할 때도 기본소득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는 결론으로 귀결됐어요. 틈새를 잡아서 여성단체들이 변화시킬 지점이 없을지.... 해외에서는 자활하는 방식 말고 다른 식의 실천이 있을까요?

김주희 : 성산업이 무엇과 만나고 있느냐가 각자 상당히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민법을 조정하면서, 이민법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고요. 금융화 문제로 성매매가 연결되는 경우가 해외에 별로 없어요. 대형업소도 없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대형업소라는 것은 굉장히 아시아적 맥락이고, 미국 유럽등지는 전화해서 나가고, 프리랜서 형식이예요. 산업 형태 자체가 많이 다르죠. 해외에서는 이민법, 난민법 이런 것들과 함께 성매매산업이 연구되는 편이예요. 저는 들으면서 유흥접객원 얘기가 흥미로웠어요. 유흥을 왜 스스로 하지 못 하느냐, 남이 끌어내는 유흥 말고, 참유흥론을 주장하면 어떨까? (일동 웃음) 거짓유흥 뿌리 뽑자! 역사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흥접객원이 역사적 맥락에서 관기의 잔재이기도 하잖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직종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2 : (질문지로 유나 활동가에게 질문)

성매매특별법이 선불금조항에 있어서도 협소하게 해석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매매선불금으로 해석되지 않지만 다른 방식의 빚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나 : 그건 만들면 생겨요. 방일수 너무 흔하고. 병원 가야 되는데 빌리면 의료비대출이고. 숙소, 주거의 불안정과 한국 특유의 전월세문화속에서 방일수를 주는 방식. 이사비용도 대출하는 경우 있고요. 포털에 그냥 치면 다 나와요. 둘을 합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흔해요. 그래서 성매매 선불금의 규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성매매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예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구하지? 인터넷을 치다보면 이런 정보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은 이름 붙이는 대로 선불금 같은 작용을 하고요. 선불금 조항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질문3 : 여성특화대출 많이 광고합니다. 티비에서도. 성매매를 처음부터 노렸다고보다는 일단 빚을 빌리는 것 같은데, 실상이 궁금합니다.

김주희 : 여성전용대출, 핑크머니, 레이디. 이런 것들 다 아가씨대출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자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는, 이때의 여자는 금융무능력자예요. 다 우스꽝스런 춤 추고 나오잖아요. 보험회사 광고와 똑같아요. “차는 ‘모른다’, 운전은 한다- 동0화제” 이런거. 돈은 쓰고는 싶지만 이자 이런 거 모르고 머리 아프고 대출 이런 거 너무 무서운데-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주면서 금융무식자 너 와서 대출해라, 단박에 이자 많지 않고 빌려준다. 그런 맥락인거죠.

여성전용대출에 뜨는 많은 상품들이 아가씨대출이예요. 관련검색어나 같이 뜨는 여성전용대출 상품 홈페이지들 들어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성매매하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는 건 바로 업소에 가서 일해서 갚기도 하겠지만 많은 여자들이 대출해서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다른데서 빌려서 갚아요. 그러면서 빚이 불어나서 유흥업소로 연결이 되는거죠.

김주희 : 정슬아 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원인으로 1. 유년시절의 성폭력. 2. 건강요인. 3. 빈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 건강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매매하면 건강 망치고... 이런 말들이 이 여성들에 대한 몸의 낙인을 강화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프로포폴 얘기를 성매매여성에게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우유주사 많이 맞고 있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 주사 맞아야 되고. 그렇게 여성들의 몸을 실제적으로 중독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슬아 : 너무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성형외과 직원의 인터뷰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성형외과 와서 우유주사 맞는 경우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 본인이 성형외과를 관둔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성형외과가 어쨌든 건강이고 의료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분. 직원 복지라면서 직원들을 마루타삼아서 시술을 하기도 하고. 월급의사들 경우에는 하루 수술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이 잘되고 안 되고는 복불복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주사관련 시술 영역이 확대되고 많아질 거란 분위기가 있어요. 필러를 맞았다면 2년 뒤에 다시 또 맞고. 있었던 콧대가 사라지면 다시 맞아야 되는 거죠.

질문5 : 실상과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도 여성알바만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데 업주들이 홍보하는 수입규모등도 사실 가서 내가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지 않나. 대출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부모님 몰래 2금융권 대출 받은 적이 있는데 1년에 3프로인데 한 달에 3프로만 내면 되는 거냐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갚기 되게 힘든 구조라는 것을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슬아 : 성형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 의무는 의사에게 사실상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을 설명할 때 녹음을 해야 한다는 식의 명백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렵겠죠.

질문5 : 벌금 정도 내는 것 타격이 안 가지 않나요? 아예 영업이 정지되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중고나라에서조차도 옷 팔 때도 제대로 설명 안하면 활동 정지처리가 되는데...

정슬아 : 채용공고를 올릴 때 월급을 얼마 줄 건지에 대해서 '내규에 따름'으로 통쳐 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 모두 문제예요.

유나 : 여0알바 등의 광고가 허위광고 이기도 한데, 유흥업소라는 공간을 규정하는 법이 식품위생법인데, 이때 유흥접객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도 않고 프리랜서로 봐요. 그리고 사실 매일 테이블 8개, 10개 보고 30일 내내 일하고 손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수를 채워준다고 하면 한 달에 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허위가 아니기도 해서... 과연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할까? 법적으로 규제해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5 : 정보를 생산하는 싸움에서 완전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상은 이렇다는 정보제공이 완전 밀리고 있지 않나....

정슬아 : 수술대위에 누워보기 전에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형수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형수술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말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형수술한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요. 미용성형 하지말자면서 또 재건성형은 괜찮다면, 재건은 어디까지 재건일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질문5 : 정보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라도 지켜진다면, 그럼에도 성형을 하겠다 말겠다는 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슬아 : 광고성 기사만 사라져도, 블로그 허위 후기들만 사라져도 쓸데없는 정보들이 걷어질 것 같아요. 부작용 피해 입은 여성들의 카페나 사이트도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래도 대중교통, 영화관에서의 성형광고만 사라져도 완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마음먹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질문6 :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성형 산업이라는 게 미용이면서 의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용에 편중되어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의료적 이유로 인한 수술이었는데 안과 말고 성형외과도 몇 군데 들렀었어요. 그런데 다들 미용적인 수술을 같이 권하더라고요. 이렇게 성형산업을 미용으로 보게 하는 아시아적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사회보험의 감시 안에, 성형을 의료의 영역에 두자거나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하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행위를 하러갔는데 불필요한 다른 것을 권유하면 안 되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김주희 : 성형할 때 정보싸움 하자는 얘기는 사실 아무리 부작용 있고, 죽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성형하고자 하는 욕망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보지 않을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예쁜 화장품을 보고 그것이 내 화장대에 오는 순간 그때의 아우라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싸움이라기보다 자본주의 판타지, 물신성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 카페 엄청 많지만, 성형 하려는 사람은 절대 그 카페 들어가지 않고요. 의료도 있고 미용도 있는데 이 둘이 분리되어있다는 것도 이미 환상입니다. 동공 때문에 수술을 하러갔더니 앞을 찢어 놓고 뒤를 찢더라? 이것도 의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눈을 잘 보이게 한다는 식으로. 미 자체가 의료화 되어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6 : 그렇다면 더더욱 그 모든 것을 보험의 영역으로, 시술 등도 모두. 감시 하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희 :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제이 : 저는 민우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인데요, 그래서 성형관련 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다룰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하는지 주장해왔습니다. 의료는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고, 과잉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형광고 그만두게 하는 거고.

정슬아 :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할 병원들이 계속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규제가 풀리고 있고,

민우회 제이 : 강남의 비싼 땅 사서 성형외과 세우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하고, 대출금 갚으려고 상품 열심히 개발하고. 산업화되고. 자본이 들어오고... 이런 흐름에 문제제기 하는 활동이 성형산업스파이활동이었고요.

질문6 : 아 민우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군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원민경 : 이 문제의 끝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인 듯해요. 유럽의 한 국가의 경우 의료인이 공공의 영역에 속해서 의료진들이 공무원처럼 일하고 공공의 방식으로 의료관련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가 우리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고요. 척추수술의 경우에 디스크수술이 유행이 퍼지다가 환우 카페에서 디스크수술 절대하지 말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디스크수술이 감소되는 것처럼 성형 카페에서의 정보공유도 필요 할테죠. 오늘 자리는 성산업과 성형산업, 대부업의 고리를 드러내는 자리였는데요. 성매매문제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상담소에서 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성산업 근절되고 성매매피해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 : 한마디만 할게요. 회의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 자리가 시작이겠죠? 자료집의 사례 중 세 경우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발생했어요. 이렇게 성형대출 피해사례를 모으면 분명 이슈 파이팅할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이걸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을 같이 잘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 : 처음에 이것을 기획 할 때는 음모론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점점 하면서 확신이 드네요. 이 사회가 여성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공모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끝-